

노동관의 제 유형과 성경적 노동관

김승욱 (중앙대학교 / 경제학)

유해신 (Calvin College / 신학)

논문 초록

이 논문은 노동관의 여러 유형들을 성경적 세계관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노동관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룬 노동관은 서구의 노동관으로 자본주의 노동관과 사회주의 노동관을 다루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 영향을 미친 전통적인 노동관으로는 불교의 노동관과 유교의 노동관을 다루었다. 이러한 동서양의 노동관이 공통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왜곡시켰다는 것을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비판을 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노동관을 구교의 노동관과 신교의 노동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신교의 노동관을 성경적 노동관으로 간주하고 이를 창조, 타락, 구속의 맥락으로 설명하였다.

핵심 주제어: 노동관, 성경적 노동관, 불교의 노동관,
유교의 노동관,

I. 서론
II. 자본주의 노동관
III. 사회주의 노동관
IV. 한국의 전통적 노동관
V. 성경적 노동관
VI. 결론

I. 서론

인간의 노동을 덜어주는 기계가 급속하게 발전하며, 산업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발전하고 있지만 현대인은 더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가 모든 사람이 다 바쁘다는 것이다. 1989년 타임지에서는 커버스토리로 '시간기근 현상'을 다룬 일이 있는데, 그 기사에 의하면 1980년대까지는 돈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1990년대에는 시간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항상 시간에 쫓긴다'는 응답자가 1977년에는 네 사람 중의 한 명으로 나타났는데, 1990년에는 세 사람 중의 한 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일에서 해방 시켜준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일의 노예로 만들었다. 이렇게 일 중독자(workaholic)들이 늘어나면서 현대인들은 일의 노예가 되고 있다. 심지어는 노동시간을 절약해 주기 위해서 고안된 제품이 오히려 인간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 가사노동을 절약하기 위한 기계들이 많이 발명되었지만 미국의 어느 조사에 의하면 가사노동시간이 주당 53시간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Gibbs, 1989).

다른 한편으로는 일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을 하는 이유가 단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에 너무 빠져서 일의 노예가 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해서 가능한 일을 적게 하려는 것도 건전한 노동의식이 아니다. 과연 올바른 노동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안에서 노동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노동관은 한 사회의 건전한 발전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막스 베버(Weber, 1904)는 개신교의 경제윤리가 오늘날 자본주의 정신의 기초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과 인도가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은 유교와 힌두교의 노동윤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Weber, 1920b).

이렇게 건전한 노동과 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개인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의 노동관에 영향을 준 동서양의 노동관과 성경적 노동관을 개관하고, 성경적 노동관에 비추어 여타의 노동관들을 비판하고자 한다. 한국인의 노동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자본주의의 노동관일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를 살펴본다. 그리고 노동운동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마르크스 노동관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한국인 의식의 뿌리를 형성한 불교와 유교의 노동관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노동관을 구교의 노동관과 신교의 노동관으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관들을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성경적 세계관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밝히려고 한다.

이 글에서는 동서양의 노동관을 단지 검토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비판을 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며, 우리 개개인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신앙고백을 한다 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점도 성경의 기초위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는 것을 확산한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노동과 일에 관한 관점도 역시 성경적 세계관의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노동관의 여러 유형들을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평가한다.¹⁾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이 개입될 경우 객관성을 상실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논점은 항상 종교적이며, 세계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모든 학문의 판단 기준은 자신의 가치관에 근거한 것이며, 인간은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한다. 이러한 점은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마찬가지이다(*한국역사연구회, 1989: 17-22*).

여러 유형의 노동관을 세계관으로 비판하고 분석하는 이러한 접근은 세속사회에서 노동이 매우 종교적이며 때로는 구원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방법론이 된다고 생각한다(*Marshall, 1989: 28*). 왜냐하면 참된 신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그 종교적인 공허함을 피조물에서 찾으려고 하고, 노동이나 그 결과로 얻어진 레저나 소비 등을 우상화하고 이것 신에게 개인적인 경건과 활동을 바치고, 노동운동가라는 제사장을 세워 공동체적 경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II. 자본주의 노동관

1.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노동을 다루는 방식

자본주의의 주류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논리에 따르

1)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의 범주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터에서 일하는 자영업도 포함하고, 경제적 보상이 없는 자발적인 노동이나 주부들의 가사노동 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여가를 누리거나 놀거나 잠자거나 먹는 등의 행위는 일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면 노동의 공급함수는 노동자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즉 사회의 노동공급량은 개인의 노동공급량, 즉 노동자들이 기꺼이 일할 의사가 있는 시간의 합계라고 간주한다. 그리고 각 노동공급자들의 하루 24시간은 노동과 여가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개인의 여가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을 위한 노동시간으로 간주한다. 여기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봉사라는 개념의 노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은 소득을 낳는다는 면에서만 의미를 지닐 뿐이며 그 자체는 부(負)의 경제재, 즉 마이너스의 효용을 가지는 재화라고 간주한다. 즉 노동 그 자체는 노동주체인 인간이 싫어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인간은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쉴 것인가를 자기가 받을 보수와 스스로 판단하는 여가에 대한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반면에 여가시간은 정상재라고 전제한다. 즉 여가를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효용 즉 만족이 증가된다는 전제하에 노동공급량을 추론한다.²⁾ 따라서 노동자는 가능한 많은 소득을 벌어서 소비를 늘리고 싶어 하지만 그러면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므로 소비와 여가라고 하는 두 가지 정(正, positive)의 효용재 (즉 만족을 가져다주는 재화) 중에 어느 것을 어느 정도로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의 공급량이 결정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 이론의 결론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수가 좋을수록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보수가 낮으면 그 돈을 받을 바에야 차라리 노는 편을 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일정 소득이 넘게 되면 오히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이 노동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가정은 노동은 인간에게 돈을 벌어드준다는 것 이외에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에서 보람을 얻거나 재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가 따르지 않는 노동은 존재하

2)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공급량=F(소득, 여가), 여기서 소득=G(노동시간), 노동시간=24-여가. 즉 하루 24시간은 노동시간과 여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은 노동시간의 함수, 즉 노동시간이 많아지면 소득도 따라서 증가한다. 노동공급량은 노동자가 더 많은 소득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여가시간을 누릴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호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오직 인간에게 효용을 가져다주는 것은 노동을 통해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여가뿐이다. 이 가정은 현대인의 노동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자본주의 노동관의 뿌리, 진보사상

이러한 자본주의 노동관은 아담 스미스의 분업론 이후에 고전학과 경제학과 신고전학파의 한계효용이론학파에 의해서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 노동관의 기본 전제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자본주의 노동관의 기본 전제들을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네덜란드의 경제사학자 하우스바르트(Bob Goudzwaard)는 이 주류경제학 노동관의 기초가 되는 것은 진보신앙이라고 하였다. 하우스바르트는 서양이 중세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세 가지 장벽을 넘었다고 했다. 즉 천국과 교회의 장벽, 운명과 섭리의 장벽, 그리고 실낙원의 장벽이다. 이 세 장벽이 르네상스, 이신론 그리고 진보사상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서구는 비로소 자본주의 사회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도래한 것은 단순히 상품생산이 진전된 결과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적 선택이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노동관의 밑에 흐르고 있는 진보신앙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Goudzwaard, 1979) 첫째, 노동자는 스스로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노동의 주인이며,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동투입량을 결정한다는 믿음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사회적 책임이나 신 앞에서의 책임 등이 개입할 소지가 매우 적다. 인간은 그저 자신의 만족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적인 인간이다. 중세의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에는

항상 천국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영원하고 궁극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은 천국이었고, 교회는 그 천국을 맛보는 곳이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이룩되었다. 즉 현세의 삶은 교회와 천국이라는 초월적인 영역에 속하는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르네상스 사조는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인간이 마침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피조세계는 인간이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인류의 도구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서 자연을 탐구의 영역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실험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상업 등 경제행위도 인간이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 역할하게 했다.

둘째, 중세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 창조사상 뿐만 아니라 그 운행을 주관한다는 섭리사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자연과학의 발달로 로마 교회의 과학관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의심하기 시작하자 그에 대한 절충안으로 이신론(理神論)이 등장하였다. 즉 우주는 수학적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기계와 같다는 생각이다. 우주를 의지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기계적 법칙만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창조는 인정하되, 섭리는 인정하지 않는 신관이다. 이신론은 창조와 섭리를 모두 인정하는 유신론(有神論)에서 창조와 섭리를 모두 부정하는 무신론(無神論)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신관이었다. 이신론에 따르면 이러한 자연법칙은 사회에도 존재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법칙은 인간사회에서 각자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에 조화를 부여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개개인의 이기심 추구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이 된다고 보고 시장이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하우즈바르트는 이런 면에서 아담 스미스를 이신론자로 보았다.

(Goudezwaard, 1979: 63-66).

세 번째로 중세에는 이 세상을 추방된 낙원(失樂園)이라고 보아, 이 땅에서는 인류의 힘으로 낙원을 건설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간 이성(理性)을 신뢰하는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의 힘으로 낙원을 건설 할 수 있다고 보고, 인류의 진보가 계속되어 유토피아를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은 진보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잣대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 잣대로 효용으로 삼았다. 즉 효용을 가장 중요한 가치체계로 보는 공리주의(功利主義)를 채택했다. 이 윤리관에 기초하여 사회를 경제적인 성장을 위한 합목적적 조직체로 보고, 모든 가치체계와 법질서는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조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진보신앙 하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유일한 통로는 노동이라고 하는 노동가치설을 낳게 된다. 인간의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 사상은 공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어,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에 의해 정교화 되었으며, 마르크스에 와서 정점에 이르게 되었다. 노동을 통한 자연의 변화가 인류를 행복한 미래로 인도하는 운하라는 것이다. 이 사상에 따르면 좀더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동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진보신앙의 노동관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노동 그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을 통해서 이룩되는 물질적 진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노동이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생산되는 재화가 인간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다. 소득을 벌어다주는 노동은 의미가 있지만 소득창출과 무관한 노동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직장이나 일터에서 소득을 가져다주는 활동만을 노동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노동 그 자체는 대표적인 비효용재, 즉 인간의 행복을 떨어뜨리므로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나 가사노동 등은 심리적 만족감을 준다는 측면이나 돈을

절약한다는 목적 이외에는 의미가 약화된다.

노동을 통한 봉사라는 측면은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돈으로 계산 할 수 없는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은 그 의미가 축소되고, 이웃사랑의 일환으로 하는 자원봉사 등 사랑의 도움도 심리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 정도로 위축되고 만다.

사용자도 노동자의 노동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가능한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인격적 실현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만의 의미가 있을 뿐 노동자의 인격이나 존엄성 등은 큰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삶의 의미를 초월적인 신이나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고, 현실에 국한 시키는 진보시사상은 노동의 의미를 경제적인 측면으로 환원시키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는 노동을 필요악으로 간주하여 가능한 적게 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고 보수에만 관심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사용자도 노동을 구입해야 할 생산요소로 간주하고 노동을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책임과 돌봄이라는 인간적인 요소는 사라지게 된다. 임금과 승진으로써 노동력의 효율성을 판단하는데, 이로써 노동 강도를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며 의미 있는 노동의 즐거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III. 사회주의 노동관

한국 사회는 최근에 진보적 사회 일각에서 특히 노동단체나 노동운동가들에서는 사회주의적 노동관에 호감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노동관은 사회주의 노동관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관의 뿌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노동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반대해서 출현했기 때문에 매우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하우스바르트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둘 다 진보사상의 후예이므로 서로 미워하는 자매와 같다고 비유했다(Gouzeluward, 1979: 134). 진보신앙이란 자율적이고 자충족적인 경제발전이 개인과 사회의 행복의 원천이라고 믿는 신앙이다. 흔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서로 대립적인 세계관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하나님 대신 물질적 진보를 신뢰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서로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하우스바르트의 지적은 옳다고 여겨진다. 또한 김승욱(1992)도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고 사회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사회구조에서 찾은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고전학과 경제학에 의해서 주창된 노동가치설은 마르크스에 와서 더욱 강화되었다. 그의 노동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노동관의 기초를 제공한 칼 마르크스에 따르면 그는 인간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보았다. 그는 역사의 주관자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며, 인간이 역사의 창조자이자 주인공으로 보았다. 인간은 역사 초기에는 자연에 의해서 구속되었지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의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진화의 과정 속에서 자연관계를 변화시킨다. 즉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역사를 창조해가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반대로 마르크스는 역사가 인간을 만든다는 점도 지적한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형태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인간에게 제1본성과 제2본성이 있다고 보았다. 제1본성이란 식욕이나 성욕과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내재된 것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타고 태어나는 본성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제2의 본성이 있는

데, 이것은 후천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물욕(物慾)과 같은 것은 본능에서 유래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회 구조하에서 생겨난 상대적 욕구라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적 욕구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인간의 의식이 그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환경이 의식을 규정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은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고, 다시 역사는 인간을 규정하므로 결국 인간이 인간을 만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역사를 인간의 노동을 통한 자기 창조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동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따라서 노동은 인간 생명의 자기표현이고,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며, 인간은 노동할 때만 인간다워지고,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한다고 본다. 이렇게 마르크스는 노동의 본래의 의미는 매우 높게 평가하고 인간의 특징을 노동하는 인간이라고 규정하였다.

둘째,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마르크스는 생산을 위한 일반적 노동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노동 그 자체는 그 의도에 관한 한, 현재의 조건에서 뿐 아니라 보편적으로도 단지 부의 증진일 뿐이며 유해하고 유독한 것이다”라고 했다(Marshall, 1989: 32).

이처럼 마르크스가 한편으로는 노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러한 모순이 생기는 이유는 인간이 동물과 달리 ‘의식과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총괄적인, 따라서 자유로운 존재이다. (중략) 동물은 생명활동이다. 인간은 의식적인 생명활동을 갖고 있다. (중략) 의식적인 생명활동은 인간을 동물적인 생명활동으로부터 직접 구별한다. 바로 이러한 구별을 통해서만 인간은 유적 존재(類的存在)로 존재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간은 오로지 의식적인 존재로서만 존재한다. (중략)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활동은

자유로운 활동이다(Marx, 1844: 60).

이 인용문에서 말하듯이 마르크스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의식적인 존재인 이유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유로운 활동으로서 하는 노동은 필연에 기초한 노동, 즉 물질적인 생존을 위한 노동과는 구별된다고 보았다. 즉 그는 자유와 필연을 대립적으로 파악한 르네상스 정신을 계승하면서, 인간의 자유를 이상화해서 먹고 살기 위한, 소위 '생명활동'으로서 하는 노동은 자유와 무관하며, 그래서 비인간적인 활동으로 보았다(유해신, 1991: 44) 그러나 마르크스의 이와 같은 자유에 기초한 노동을 이상화하는 사고는 생산적인 활동 그 자체를 비하하게 되고, 결국 자본주의 노동관과 다를 바가 없게 만든다.

셋째, 마르크스는 첫 번째 말한 본래적 의미의 노동, 즉 높이 평가될 수 있는 노동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첫째,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분업 때문이라고 보았다. 분업은 노동의 창의성을 파괴함으로써 인간을 노동과정에서 소외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가에 의한 노동의 착취로 인해서 노동자는 자기 생산물을 빼앗기게 됨으로써 노동 산물로부터도 소외되며,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작업 그 자체로부터의 소외가 일어나며, 사회적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한 삶을 살게 되어 자신의 인간적 본질로부터도 소외되고(이 마지막 소외를 마르크스는 '종교'라고 부른다), 이러한 인간은 다른 인간과도 대립하게 되고 정신적 요소까지 영향을 받아서 인간이 마침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가 산업현장에 있는 소외 현상을 문제로 포착한 것은 훌륭하였지만, 소외의 궁극적인 원인이 사적 소유에 있다고 한 것은 '자유와 자연의 이원론'에 입각한 지나친 환원으로 보인다. 그는 인간 갈등의 원인도 이러한 소외에서 찾았는데, 소유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의 갈등이 사라진다고 하는 논리는 그 후 사회주의 역사에 의해

서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넷째, 마르크스는 참된 노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제도가 폐지되어 인간이 이러한 소외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의 목표는 인간의 해방이며, 인간의 해방이란 생산관계에 있어서 자기 창조와 자기실현을 뜻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말한다(Frorm, 1983: 51). 이를 위해서 먼저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가 사라져야 하며, 그 과정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분업도 없으며 노동의 완전한 본질이 회복되는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여 생산성이 극대화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과도기적 단계가 필요한데, 이것을 엥겔스는 사회주의라고 명명하였다. 그리하여 이상적인 공산사회가 도래하면, 노동은 즐거운 것이 되며, 따라서 능력에 따라 일하며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갖는 이상적인 공산사회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때 인간은 “생계를 위하여 어느 특정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오전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낚시하고 저녁에는 양을 치며 저녁 식사 후에는 비평을 쓰는 자유로운 노동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Marx, 1844: 53).

마르크스는 인간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생산력의 발전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도 자본주의의 중요성은 인정했다. 결국 마르크스는 그가 중요하게 여긴 자유의 노동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직적 질서에서의 위쪽’이 아니라, ‘물질적 진보에 의한 앞쪽’에 있다고 보았다(유해신, 1991: 44).

노동자의 소외현상을 지적한 것은 마르크스의 훌륭한 비판이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공감한다. 그러나 사적 소유 제도를 철폐하면 저절로 노동자에게 의미 있는 노동이 보장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사회주의 실험에서 그 현실성이 부정되었다. 이론적으로도 자유에 기초하여 노동하는 그러한 이

상적인 사회가 물질적 진보로 달성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 말은 결국 의미 있는 노동이 실현되는 미래가 도래하기까지 소외된 노동에 근거한 자본주의적 사회가 희생재물로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본주의 노동관이나 사회주의 노동관은 서로 상반되거나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상은 노동을 성장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생산요소로 보는 관점이나, 이상 사회의 도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모두가 노동이 갖는 풍부한 의미를 축소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두 노동관은 진보신앙이 낳은 쌍둥이에 불과한 것이었다(유해신, 1991: 44). 이렇게 서구의 노동관은 자본주의이든 사회주의이든 진보신앙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V. 한국의 전통적 노동관

한국의 노동관은 전통적인 노동관 위에 선진국에서 도입된 자본주의 노동관과 사회주의 노동관 등이 어우러져 형성되었으므로, 이 절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노동관을 살펴보고 이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비판하고자 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은 유교, 불교, 샤머니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절에서는 고등종교로 분류되는 유교와 불교의 노동관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한국인의 노동관의 뿌리를 검토하고자 한다.³⁾ 노동을 비경제재, 즉 인간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이다. 이는 타락으로 인해 노동에 수고가 따르게 됨으로 인해서 생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불교와 유교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노동을 천시 여겼으며, 그 뿌리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본다.

3) 이 부분은 유해신(1991)를 요약한 부분이므로 각 부분의 주를 생략한다.

1. 불교의 이원론적 노동관

고려시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불교는 현실을 고해(苦海)로 보고 깨달음을 통해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려는 종교이다. 이러한 불교의 사상은 노동관에도 잘 나타난다. 해탈을 추구하는 승려는 무소유와 절제가 미덕이므로 물질적인 생산을 위한 일은 가능한 피해야 하며, 일을 하다가 생물을 죽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일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출가하지 않은 중생들의 생산을 위한 노동은 장려되었다. 그 이유는 그 자신과 가족의 경제생활을 충당하고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일의 더 중요한 목적은 수도자를 공양하는 것이었다(김재영, 1989: 32).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가 형성되던 시기인 삼국시대에 전래된 불교는 부족국가와 귀족세력을 약화시키고 고대국가로 통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용되었다.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불교는 왕실의 지원 하에 무속 종교를 포섭하면서 지배적 종교로 성장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는 지배계층의 기득권을 용인해 주는 이념으로 작용하여, 6-7세기 신라(514-660)에는 불교식 이름을 왕명으로 채택하였고, 신라의 법흥왕은 승려가 되었고, 고려 시대에는 왕자인 의천이 승려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불교가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종교로 성장하면서, 사찰은 왕실과 귀족의 헌납한 재산에 의해서 경제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고려시대에는 사찰이 대토지 소유자로 성장하였고, 이는 조선의 개국을 여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4) 기원전 6세기에 발생한 소승불교는 율락단위로 나뉘어 있던 율락국가를 통일한 전제왕권에 종속시키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했다. 그러나 기원 후 2-3세기에 등장한 대승불교는 부처와 법은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편재한다고 하여 왕권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버렸다. 한국에 전래된 불교는 원래 대소승을 합친 형태로 중국을 통해 전래되었다. 그런데 한국에는 지배자 중심으로 수용되었다.

불교에서는 노동은 초월적인 영역에 속하는 승려의 종교적인 수행을 공양하는 저급한 영역으로 인식하였다. 또 이 세상을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으로 이원적으로 구분하였다. 거룩한 영역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왕족이나 귀족 등은 위의 계급으로 간주하고, 반면에 일반 민중이나 노비들은 아래의 계급으로 간주하였다.

이렇게 볼 때 불교는 육체적인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하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불교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깨달음을 가능케 하는 인간의 정신을 이상화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상 숭배적 이원론에서 인간의 삶에 대한 이원론이 생겼다. 즉 명상하는 일은 해탈에 이르는 영원한 고귀한 일인 반면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생활은 현세적인 의미 밖에 없고 잘 해야 해탈을 위한 수단을 제공할 뿐이라는 관점이 생겨났다. 이는 그리스와 로마에서 노예노동이 노예주들의 여가 생활을 보장하기 때문에 의미를 지니는 것과 유사하다.⁵⁾

2. 유교의 이원론적 노동관

한국의 전통 종교 중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유교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교는 한국의 경제적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교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막스 베버가 중국의 경제적 낙후의 원인이 유교에 있음을 지적한 이후에, 유교는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인식되었다(Weber, 1922a; 1922b). 그러나 서구 국가들은 1970년대 오일 파동 이후 경기침체에 빠졌으나,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연평

5) 그러나 승려들의 명상활동은 그리스나 로마의 레저생활과는 다르다. 수도지는 물질적인 생산에는 종사하지는 않지만 종교적 사역은 하는 것이다(김재영, 1989: 63).

군 7~8% 이상의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는 동남 아시아의 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 등도 신흥공업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세계 절반의 인구를 가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량이 세계교역량의 40%를 차지하면서 태평양 시대가 오면서, 유교가 다시 평가가 시작되어, 소위 아시아적 가치논쟁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적 가치가 이 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나, 경제위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리하여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식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집단의 장점이 부각되었으며, 높은 저축율과 교육열은 아시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되었다. 개인주의 중심의 서구적 자본주의가 공동체 중심의 유교문화권에 접목될 때 새로운 형태의 아시아적 자본주의가 형성되었으며, 청교도정신과 유교문화가 접목되어 신유교주의를 형성했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정부주도적 성장모형과 기업집단은 정경유착과 비효율의 원인으로 간주되고, 유교문화는 부정부패를 낳는 주범으로 인식되어, 아시아의 자본주의는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유교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저술들이 많이 등장했다(김은희·함한희·윤택림, 1999; 김경일, 1999; 최윤재, 2000).

그리하여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의 독특한 가치관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 또는 ‘유교 자본주의’(Confucian Capitalism)’라는 주제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이 논쟁은 경제학자, 윤리학자, 종교학자, 철학자, 정치학자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은 물론이고, 저널리즘, 정치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극단적인 견해의 차이를 보이면서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안충

영·김승욱, 1999: 29-49).

이 글에서는 유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중에서 특히 노동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유교의 높은 교육열이 간접적으로 노동공급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유교가 노동관에 미친 직접적인 노동관에 논의를 국한시켜서 살펴보려고 한다.

유교는 정치적 지배계층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출현하였다(김정일, 1999: 104) 그리고 진시황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춘추전국 시대의 정치적 혼란을 끝내고 통일을 위한 정치적 이념으로 한 무제에 의해서 부활함으로써 그 후 동양의 지배적인 이념으로 성장하였다(최윤재, 1999: 94).

유교는 불교와는 달리 현실 도피적이지 않았음도 불구하고 유교의 노동관은 불교와 마찬가지로, 노동에 종사하는 소인(小人)과 다스리는 군자를 구분했으며, 전자는 후자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물론 후자도 일종의 노동을 한다는 인식은 있었다. 불교에서 승려가 종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유교에서는 군자나 선비가 단순한 여가만 즐기는 소비계층이 아니라 통치하는 일(정신노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맹자는 군자가 수공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유는 농민이 수공업을 겸할 수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하였다.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한 사람은 정신으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육체로 일하는 정신노동자와(勞心者)와 육체노동자(勞力者)”의 차이라고 했다(김재영, 1989: 52). 그러나 유교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나누었고, 다스리는 일은 육체적인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이원론적 인식을 가짐으로써, 생산에 관련된 일의 의미를 축소시켰다.

현실 도피적이었던 불교와는 달리, 유교는 인간 사회에 하늘의 도리를 구현하려고 하였으나, 인간의 육체노동을 정신적인 일, 즉 육체노동자를 다스리고 하늘의 도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정신노동보다 저급한 것으로 간주

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적 인식은 사회적으로 신분제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예를 들면 노비제의 경우 노비는 양반을 대신하여 생산 활동과 일상적인 활동을 대신해 주는 “손과 발”로 인식되었다. 또한 이러한 노동의 비하는 정치적으로는, 백성이 군주에 예속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즉 군신관계는 상전과 노비의 관계로 이해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 보면 유교는 지주-소작관계를 지지하였다. 자본주의 농업 하에서 자본가는 무엇을 경작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기후 등의 불확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등 직접 경영을 하는 반면에, 소작제하의 전근대적 농업에서 지주는 농업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다만 소작인의 생산물의 일부를 받았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농업과 구별된다.⁶⁾ 이런 면에서 볼 때 지주는 불로소득자이다. 물론 양반들은 노비와 평민들을 교화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향약 등을 실시하고 유학(儒學)을 연구하였고, 때로는 새로운 농사 기술의 연구와 도입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양반들은 노동이 창의성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은 부족했고, 그 결과 육체적인 노동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했다.

이러한 유교의 이원론적 노동관은 조선시대 동안 계속 유지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시문(詩文)을 중시여기는 사장파(詞章派)와 철학을 중요시한 도학파(道學派)로 양분되지만, 이 이원론적 사고는 계속 유지되었다. 후기에 와서도 사림(士林)은 율곡의 주기(主氣)파를 이은 서인(西人)보다 퇴계의 주리(主理)파를 이은 동인(東人)이 주류가 되면서 더욱 관념적으로 되어 육체

6) 조선 후기에 평민 농민들이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통해 토지 소유자로 상승한 소위 “경영형 부농”이 성장했다는 학설도 있다. 그러나 이들 신흥 지주들도 계속 농업에 종사하기 보다는 과거의 지주들처럼 일하지 않고 지대(地代)로 생활하는 계층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이것은 조선사회의 노동계층에서도 육체적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관점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으로 보여준다.

노동을 천시였다. 그 후 예론(禮論)을 중심으로 남인(南人)과 북인(北人)으로 대립되면서 더욱 육체노동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관념론에 치우쳤다.

이러한 성리학의 경향과는 달리 18세기에 실학자라고 불리는 일단의 유학자들은 농업이나 상업 등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정약용은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양반들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 실학도 성리학의 큰 틀인 이원론을 극복한 흔적은 찾기 힘들다.

이와 같이 유교나 불교로 대표되어지는 한국의 전통적인 노동관에 의하면 학문 수행과 통치 등의 정신적 노동은 매우 중요시하여 이상화되면서, 반면에 경제적 생산을 위한 노동의 의미는 비하(卑下)했다. 이러한 노동의 이원론적 비하는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는 일에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배자인 ‘군자’나 승려들에게 인격적으로 예측하게 만들었다. 또한 육체적인 일을 천시 여김으로 인해서 자연의 올바른 개발의 여지를 줄이고, 빈곤문제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생산력의 저하는 다시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도록 만듦으로 인해서 노동자에게 쉼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서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어렵게 만들었다.

V. 성경적 노동관

1. 구교의 노동관

기독교 노동관은 크게 구교의 노동관과 신교의 노동관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은 신학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노동관, 직업관, 이지에 대한

견해 등 많은 경제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지역인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의 지역이 구교지역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근대적 경제성장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본주의 정신의 기원이 개신교 윤리에 있다는 소위 베버 명제를 주창했다.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소명의식관의 변화는 새로운 직업관을 낳았고, 장 칼뱅(Jean Calvin)의 이자관은 많은 부르주아들에게 이자지급을 죄악시하는 족쇄에서 풀어줌으로 인해서 자본시장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주었다.

그리스-로마시대에는 노동은 저주스러운 것이며, 자유인의 위업에 손상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겼다. 종교개혁 이전의 구교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적 삶과 관조적 삶을 구분했다. 행동적 삶이란 가르치는 일, 설교, 학습 등을 포함하는 모든 노동을 말하고, 관조적 삶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명상 등을 말한다. 어거스틴은 행동적인 삶이 악하다고는 보지 않았지만 가능한 관조적인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중세에는 경제생활에 필요한 노동이 성직자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면에서만 초월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일상적인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생각은 노동을 성스러운 노동과 세속적인 노동으로 나누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성스러운 일이고, 그 외의 일상적인 일은 영적으로 이등 계급인 평민들이 하는 것으로 격하되었다.

2. 개신교의 성경적 노동관

칼뱅은 노동과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분업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여, 인간의 일상생

활의 노동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간주하여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에 가치를 부여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간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일 그 자체가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일이라는 것이 타락의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였다. 루터는 “인간은 타락 이전에도 여가를 즐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일은 인간이 전정으로 인간다워지는 것의 한 표시이다.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트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선(善)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게으름을 비난 받아야 할 것으로 여겨졌고, 노동은 개인적인 책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의무로 이해했다. 따라서 바울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한 것과 같이, 일을 하지 않고 먹고사는 것은 다른 사람의 땀의 대가로 사는 것이므로 용납되지 않았다.

또한 노동의 ‘성’과 ‘속’의 차별을 없앴다. 루터는 가사(家事)를 돌보는 것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므로 성직자가 거룩한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게 존귀한 것이라고 기록했다. 따라서 세속적인 일처럼 보이는 노동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이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고 했다. 이러한 견해로 일상적인 노동이 격상되었고, 모든 종류의 노동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소명(召命)의 변화를 낳았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인식이 배태되었다. 소명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이나 일을 포함한다. 일이란 것이 단지 직장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도 모두 포함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

을 일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일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다.

일에 대한 동기와 보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에 대한 보답은 물질에 국한되지 않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회에 덕을 끼친다. 노동의 목적은 자기 가정의 생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⁷⁾

3.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본 성경적 노동관⁸⁾

성경이 말하는 노동의 의미를 창조, 타락, 구속의 맥락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창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요,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문화명령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과정이다(창 1:28). 창세기(2:2)에 의하면 하나님은 6일간 일하시고 7째 되는 날에 쉬셨다. 예수님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 4:34)”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삼위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도 역시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아담에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이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일이 하나님이 애초에 의도하신 대로 순수한 즐

7) 이러한 프로테스탄트들의 노동관은 오늘날에는 구교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198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모든 성직자에게 보내는 “인간에 관하여”라는 66쪽의 회칙에 나타난 노동관은 프로테스탄트들이 가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며 주장하던 것과 거의 유사하다. 일의 숭고함을 강조한 것이라든지, 인간이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심지어는 삶의 영역에서 성과 속의 구별이 없다는 것까지 거의 유사하다. 이것은 오늘날 가톨릭의 공식적 견해이다(김승욱, 1996b).

8) 이 부분은 김승욱(1996b)과 유해신(1991)에 주로 의지했다.

거움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창세기(3:17-19)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라고 했다.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 수고의 결실이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전도서(2:11, 13) 기자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일 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일이 힘들어지고 결과로 일을 싫어하게 되고(잠66-11), 반대로 만족을 얻으려고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었다(시 127:2). 그리고 노동은 압제와 착취의 수단이 되고(약 54), 우상이 되기도 한다(전 5: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일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두지 않으셨다. 모세가 받은 소명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받았다. 브살렐에게는 보석세공의 기술을, 오홀리압에게는 목수의 재능을 부여해 주었고(출 31:1-6) 이들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에 응했다.

그런데 이 노동은 예수의 구속사역과 함께 구속되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소명을 받았다. 이 소명에는 성과 속의 구별이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신의 생을 부양하기 위한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았다(엡 1:3). 이 일은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있을 것이다(사 65:21-22).

VI. 결론: 성경적 노동관의 의미와 여타 노동관에 대한 평가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의 맥락에서 보는 노동관은 어떠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의 입장에서 앞에서 살펴본

동서양의 노동관은 어떻게 비판되는지 살펴본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볼 때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문화 명령에 대한 수행을 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봉사와 경배의 통로라는 의미를 지닌다. 노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노동자의 자기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노동을 자율적인 인간의 자기실현의 수단으로 보는 르네상스 이후의 인본주의적 노동관도 성경적 노동관에 비추어볼 때 용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듯이, 모든 노동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취급된다. 이 점은 영역주권을 말한 도에베르트에 의해서 잘 지적되었다. 그는 “모든 사회적 관계들은 그 자체의 생존을 위한 구조와 법칙을 하나님께 받으며 그 자신의 영역에서는 주권을 갖는 것 (도에베르트, 1988: 164)”이라고 했다. 이 사상에 의하면 어떤 노동이 다른 영역의 일에 비해서 저급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은 독자적인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인격적 가치의 서열이 결정되는 한국의 전통적인 불교와 유교의 노동관은 성경적 세계관에 비추어볼 때 옳지 못하다.

둘째, 노동이 노동자 자신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다. 노동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책임지도록 창조된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인간은 모두 각자의 성격과 재능, 성향 등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르게 개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따라서 노동을 통해서도 그러한 개성이 자유롭게 실현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자신의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범 안에서의 자유를 말한다. 인간의 창조주가 세운 규범은 진정으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인간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인간은 노동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하고,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노동을 단순히 생산요소의 하나로 여기는 전체주의적 관점과 매우 다르다. 인간을

여러 부품처럼 취급하면 일시적으로 노동분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노동자를 파멸시키며,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노동의 효율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노동은 단지 노동자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적 인식이다. 노동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이웃에 봉사하는 수단이다. 일에서 얻는 보수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등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가 만든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함으로써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즉 노동은 단지 보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 자체가 봉사의 의미가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과 관련된 아래 윗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노동은 개인의 성취감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서 참된 성취감을 발견해야 한다.⁹⁾

넷째, 노동이 피조세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자.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피조계를 다스리며 보존한다.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폭군적으로 자연을 파괴하게 만드는 진보사상과는 달리 성경은 자연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보존을 강조한다(창2:15). 또한 노동가치설에서는 인간의 노동만이 가치의 원천이라고 보고, 자연은 단지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개발될 때만 가치가 창출된다고 보지만, 성경은 자연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의미와 가치가 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의 노동과 자연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자연은 인간에게 유용한 것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가치를

9) 이러한 면에서 모든 세금이 토지의 불로소득에서만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소득세를 부정하는 토지 단일세론자들의 주장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근로소득세는 건강한 형제들이 나이 들고 병들어서 일하지 못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수입의 일부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지니고 있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존재라고 가르친다(시 19:1-6) 하나님은 자연에도 안식년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자연은 그에 합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인간이 각자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이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인간의 각자의 재능대로 부여함을 받은 노동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경시한 불교나 유교의 한국 전통적 노동관이나 일의 의미를 경제적 가치창출이라는 것으로 축소시킨 자본주의 노동관이나 사회주의 노동관 모두 성경적 세계관에 비추어 올바른 견해라고 볼 수 없다.

참고문헌

- Fromm, Erich (1961), *Marx's Concept of Man*, 김창호 역(1983), 『마르크스의 인간관』, 동녘.
- Gibbs, Nancy (1989), "How America Has Run Out of Time," *Times*, 1989, 4, 24.
- Gouzdward, Bob (1979), *Capitalism and Progress: A Diagnosis of Western Society*, 정세열·김병연 역(1989), 『자본주의와 진보사상』, IVP.
- Marshall, Paul (1989) "소명, 노동 그리고 쉼," 『폴 마셜 글모음』, IVP.
- Marx, Karl and Frederick Engels(1844-45), *Die Deutsche ideologie* 김대웅 역(1989), 『독일 이데올로기』, 두레신서.
- Marx, Karl (1844),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aus dem Jahre*, 김태경 역(1987), 『경제학-철학 수고』, 이론과 실천사.
- Weber, Max (1904),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박성수 역(1988),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문예출판사.
- _____(1922a), *The Religion of China: Confucianism and Taoism*, Hans H. Gerth tr. (1951), New York : The Free Press.

- _____ (1922b), *The Sociology of Religion*, Ephraim Fischhoff tr. (1963), MA: Beacon Press.
- 김경일 (1999),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바다출판사.
- 김승욱 (1992), “A. Smith, K. Marx, 및 J. Calvin의 人間觀 비교: 인간관, 모순의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성』, 4(1).
- _____ (1994), “메이테이의 유래”, 『복음과 상황』, 1994(5).
- _____ (1996a), “일과 여가 (I): 현대인은 일과 여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복음과 상황』, 1996(7).
- _____ (1996b), “일과 여가 (II): 그리스도인의 일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복음과 상황』, 1996(8).
- _____ (1996c), “일과 여가 (III): 그리스도인의 여가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복음과 상황』, 1996(9).
- _____ (1997), “노동법 개정에 대한 기독교인의 시각”, 기독교학문연구회 월례회 발표논문, 1997. 5. 10
- _____ (2000), “교회 안에 들어온 자본주의 세계관”, 『목회와 신학』, 2000(10).
- 김은희·함한희·윤택림 (1999), 『문화에 발목 잡힌 한국경제: 경제위기에 대한 문화적 분석』, 현민
- 김재영 편 (1989), 『직업과 소명』, IVP.
- 도에베르트 (1988), “기독교국가 이념과 영역주권”, 황영철 편저,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나비.
- 손봉호 (1991), “기독교적 노동관”, 『새로운 지성』, 3(1), 1-6.
- 안충영·김승욱 (1999), “아시아적 가치논쟁과 경제성장”, (중앙대학교) 경제논문집, 중앙대학교 경제연구소, 14, 29-49.
- 유해신 (1991), “기독교적 노동관과 노동운동”, 『새로운 지성』, 3(1), 36-61.
- 최운재 (2000), 『한비자가 나라를 살린다』, 청년사.
- 한국역사연구회 (1989), “한국사 인식의 방법과 과제”, 『한국사 강의』.

ABSTRACT

Perspectives on Labor and the Biblical Perspective

Seung-Wook Kim and Hae-Shin Ryu

This paper deals with various perspectives on labor, with critics from the point of the Biblical worldview and with what the Biblical perspective on labor is. The perspectives on labor dealt with in this paper are capitalistic and socialistic perspectives in Western, and Buddhist and Confucianism perspectives in Orient. The main point of this paper is that all the non-Biblical perspectives on labor are under-evaluate the importance or real meaning of labor. And in this paper, the Christian viewpoint of labor are explained under Roman Catholic view and Protestant view on labor. We call the Reformed Church view on labor as the Biblical view and explained it under the context of creation, fall and redemption.

Key words: Christian perspective on labor, Buddhist perspective on labor, Confucianism perspective on labor